BARUN EDUCATION

뉴스를 읽고, 근거를 이해하고,
내 생각으로 답하는 면접 수업

미추홀외고
면접 준비를 위한
시사 BEST 7

01 AI가 답을 주면, 나는 무엇을 배우나?

02 진짜 같은 영상, 무엇을 믿어야 하나?

03 같은 폭염인데, 피해는 왜 다를까?

04 AI가 번역하는데, 외국어는 왜 배울까?

05 SNS 연령 제한, 보호와 자율의 기준은?

06 난민 지원, 도움을 넘어 공존으로

07 세계 무역이 늘면, 모두에게 이익일까?

2026년 10월 20일 자료 확인 · 중학생을 위한 읽기와 말하기

바른에듀케이션

자체 제작 학습자료 · 실제 기출 및 출제 예측 자료 아님

HOW TO STUDY

아는 뉴스를, 설명할 수 있는 생각으로

시사 면접 연습의 목표는 정해진 입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고, 근거가 뒷받침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판단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책의 7개 주제는 언어·교육·국제사회와 연결해 생각하기 좋은 이슈를 편집상 선별한 것이다.

한 주제, 두 쪽, 네 단계

1 사실을 잡는다

언제, 누가, 무엇을 발표했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전망과 확정 실적, 위험 경고와 발생 집계를 구분한다.

2 근거를 이해한다

연구가 무엇을 비교했고 무엇을 알아냈는지 말한다. 실험·관찰연구·종합평가·이론의 차이를 확인한다.

3 판단의 조건을 세운다

찬성 또는 반대라는 결론만 말하지 말고, 어떤 조건과 보완책이 필요한지 설명한다.

4 내 말로 바꾼다

근거 하나를 골라 말하고 반론을 인정한다. 개인 경험을 붙일 때는 실제로 한 활동만 사용한다.

답변의 틀 | 나의 판단 → 뉴스 사실 → 연구 근거 → 한계·보완책 → 나의 탐구
예시는 생각의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경험을 지어내거나 문장을 통째로 외우기보다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자.

목차

01 AI와 학습 3~4
02 딥페이크와 정보 신뢰 5~6
03 기후위기와 불평등 7~8
04 AI 번역과 언어 다양성 9~10
05 청소년 SNS와 자율성 11~12
06 난민과 사회적 공존 13~14
07 국제무역과 공정한 전환 15~16
통합 면접 연습과 자기 점검 17
기사·학술자료 출처 18~20

모든 문항·가상 사례·답변 예시는 바른에듀케이션의 학습용 구성이다. 학교의 실제 면접 방식·평가 기준을 설명하거나 출제를 보장하지 않는다. 기사 원문을 전재하지 않고 핵심 내용을 재서술했다.

ISSUE 01 교육 · 기술 윤리

AI가 답을 주면, 나는 무엇을 배우나?

01 뉴스의 출발점 / 2026.04.02

유네스코의 교육 전문가 해설은 생성형 AI가 글을 쓰고 문제를 풀어 주는 시대에도 학습의 목적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생이 완성된 결과물을 빠르게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학생이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기술의 편리함과 학습자의 사고 과정이 함께 논의되는 이유다. [01]

02 개념을 이해하기

- **인지적 외주화** 기억·계산·판단의 일부를 도구에 맡기는 일. 도움의 범위에 따라 학습을 돕기도, 연습 기회를 줄이기도 한다.
- **발판 제공**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힌트와 질문을 제공하고, 실력이 늘면 도움을 줄이는 방식.

03 학술 근거로 더 깊이 보기

AI를 쓸 때의 성과와 AI 없이 푸는 능력은 다르다

Bastani 연구진은 고교 수학 수업의 현장실험에서 일반적인 AI 도움과 교사 설계 힌트를 중심으로 한 AI 도움을 비교했다. AI는 연습 중 수행을 높였지만, 도움을 없앤 평가에서는 일반 AI에 의존한 학생들의 학습 손실이 나타났다. 힌트 중심의 보호 장치는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했다. [02]

이 결과를 학습 원리로 해석하면, 어려움을 모두 없애는 것보다 학생에게 필요한 사고를 남겨 두는 설계가 중요하다. 정답을 보는 순간과 풀이를 자기 말로 재구성하는 순간은 다르다. AI의 좋은 역할은 학생 대신 결론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근거를 설명하게 만드는 데 있다.

내 생각 먼저 → AI의 힌트·반론 → 도구 없이 설명

학습 설계의 제안: 결과물의 질과 스스로 설명하는 능력을 함께 확인한다.

연구를 읽을 때 지킬 경계

한 고교 수학 맥락의 결과다. 모든 연령·과목·AI가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결론이나, AI 사용 자체가 지능을 낮춘다는 주장은 뒷받침하지 않는다.

[01] Wayne Holmes / UNESCO Courier / 시사 해설 / 2026.04.02; 수정 04.07 (전체 출처: 18~20쪽)

[02] Bastani, H. et al. / 동료심사 연구 / 2025 (전체 출처: 18~20쪽)

ISSUE 01 생각을 내 말로 바꾸기

근거를 선택하고, 판단의 조건을 말하자

사례로 생각하기 / 수업용 가상 상황

학급의 탐구보고서 과제에서 한 학생은 AI가 쓴 글을 바로 제출했고, 다른 학생은 AI에게 반론을 요청한 뒤 자신의 초안을 고쳤다. 두 결과물의 문장 수준이 비슷하다면, 교사는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까?

04 함께 살펴야 할 두 관점

활용을 넓힐 이유

개별 설명과 피드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출발점이 다른 학생에게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설계에서 지킬 조건

도구에 대한 접근 격차와 과제 대행을 살펴야 한다. 초안·수정 이유·도구 없이 하는 설명을 함께 평가할 수 있다.

05 면접 말하기 / 자체 제작 연습 질문

1. [기본] 학습에서 AI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반론] AI 활용을 제한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기회를 줄이지 않을까요?
3. [확장] 과제를 빨리 끝낸 것과 실제로 배운 것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답변 구조 예시 / 자신의 경험을 더해 60~90초로 연습

저는 AI를 활용하되 학생이 설명할 몫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수학 실험에서는 AI로 연습 성과가 좋아져도, AI가 사라진 뒤의 학습까지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을 받기보다 힌트와 반론을 요청하고, 마지막에는 화면을 닫은 채 제 말로 설명하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 연구를 모든 과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수업 목적에 맞게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06 나의 답변 만들기

내가 AI 도움 없이 끝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공부 한 가지와, AI에게 맡겨도 되는 일 한 가지를 나누어 적어 보자.

cognitive offloading 인지적 외주화 / scaffolding 발판 제공

ISSUE 02 미디어 · 민주적 소통

진짜 같은 영상, 무엇을 믿어야 하나?

01 뉴스의 출발점 / 2026.07.3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8월 2일부터 AI 상호작용과 생성·변형 콘텐츠에 관한 새로운 투명성 규칙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딥페이크 표시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 등이 포함된다. 핵심은 사람들이 콘텐츠의 제작 방식을 알고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다. 다만 의무의 대상·예외·유예는 구분해야 한다. [03]

02 개념을 이해하기

- **딥페이크** — AI로 사람의 모습·목소리 등을 사실처럼 생성하거나 변형한 콘텐츠.
- **심리적 접종** — 조작 기법과 그 반박을 미리 배워, 비슷한 설득을 만났을 때 알아차리도록 하는 접근. 사전 반박 교육이라고도 한다.

03 학술 근거로 더 깊이 보기

거짓 주장 하나보다, 사람을 흔드는 방식을 배운다

Roozenbeek 연구진은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 거짓 양자택일, 희생양 만들기 등 조작 기법을 설명하는 짧은 영상을 시험했다. 총 6,464명을 대상으로 한 여섯 무작위 연구와 22,632명이 참여한 유튜브 현장 연구에서 조작 기법 식별과 정보의 신뢰성 구별, 공유 판단이 개선되었다. 이미 퍼진 거짓말을 뒤늦게 고치는 방법에 사전 교육을 더할 수 있다는 근거다. [04]

교육의 초점은 “이 주장이 틀렸다”를 외우는 데서 더 나아갈 수 있다. “왜 지금 화가 나게 만들지?”, “두 선택밖에 없다는 말이 맞나?”라고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영상이 매끄러운지보다 최초 게시자, 원래 맥락, 독립적인 확인 자료를 살피는 태도가 필요하다.

감정·조작 감지 → 공유 잠시 멈춤 → 출처·맥락 확인

정보 판단의 연습 흐름: 합성 여부의 표시와 내용의 진실성은 별도로 판단한다.

연구를 읽을 때 지킬 경계

이 연구는 조작 기법 교육의 효과를 시험했다. 모든 딥페이크를 탐지하거나, 교육 효과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증거는 아니다. 표시가 없는 콘텐츠가 곧 진짜인 것도 아니다.

[03] European Commission / 공식 발표 / 2026.07.31; 적용 08.02 (전체 출처: 18~20쪽)

[04] Roozenbeek, J. et al. / 동료심사 연구 / 2022 (전체 출처: 18~20쪽)

ISSUE 02 생각을 내 말로 바꾸기

근거를 선택하고, 판단의 조건을 말하자

사례로 생각하기 / 수업용 가상 상황

반 단체 대화방에 “학교가 내일부터 휴교한다”는 교장 선생님 영상이 올라왔다. 목소리와 얼굴은 자연스럽지만, 학교의 공식 공지는 없다. 친구들은 빨리 다른 반에도 보내자고 한다. 첫 행동을 정해 보자.

04 함께 살펴야 할 두 관점

표시와 규제가 할 일

제작·유통 주체의 책임을 높이고, 이용자가 합성 여부를 판단할 단서를 제공한다. 피해 구제와 이의 제기 절차도 필요하다.

교육과 확인이 할 일

악의적 제작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풍자·예술의 맥락도 있으므로, 콘텐츠의 진위와 표현의 목적을 구별해야 한다.

05 면접 말하기 / 자체 제작 연습 질문

1. [기본] 딥페이크 문제를 줄이려면 규제와 교육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2. [반론] AI 표시가 붙은 영상은 믿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요?
3. [확장] 친구가 믿고 공유한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답변 구조 예시 / 자신의 경험을 더해 60~90초로 연습

저는 제작자의 표시 책임과 이용자의 확인 교육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시 규칙은 판단의 단서를 주지만, 악의적인 유통까지 모두 막지는 못합니다. 조작 기법을 미리 가르친 연구에서도 정보 판단이 나아졌습니다. 학교에서는 감정을 강하게 자극하는 내용을 만나면 공유를 멈추고 공식 출처와 원래 맥락을 확인하도록 연습할 수 있습니다. AI로 만들었다는 사실과 내용이 거짓이라는 판단도 구분하겠습니다.

06 나의 답변 만들기

최근 본 온라인 주장 하나를 고르고, 최초 출처·작성 날짜·독립 확인 자료를 어디서 찾을지 적어 보자.

deepfake 딥페이크 / prebunking 사전 반박 교육

ISSUE 03 환경 · 형평성

같은 폭염인데, 피해는 왜 다를까?

01 뉴스의 출발점 / 2026.03.23

세계기상기구가 202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1850~1900년 평균보다 약 1.43° C 높았다. 2015~2025년은 관측 기록상 가장 더웠던 11개 연도였다. 폭염과 폭우 등의 피해는 경제·사회의 연결 구조와 취약성을 함께 드러낸다. 한 해의 기온과 장기 온난화 수준은 구별해 읽어야 한다. [05]

02 개념을 이해하기

- **기후 위해** 폭염·홍수처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후 현상.
- **노출과 취약성** 노출은 위해가 닿는 곳에 사람·자산이 있는 정도, 취약성은 피해를 입기 쉬운 조건이다. 대응 자원의 부족도 영향을 준다.

03 학술 근거로 더 깊이 보기

위험은 기온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2실무그룹은 수많은 연구를 종합해 기후 위험을 위해·노출·취약성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빈곤, 불평등, 취약한 기반시설과 제도는 피해와 적응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같은 기상 현상을 겪더라도 집단과 지역에 따라 위험이 다를 수 있다. [06]

예를 들어 같은 폭염 속에서도 냉방이 되는 실내에 있는 사람과 그늘 없이 일하는 사람의 노출은 다르다. 단열이 나쁜 집에 살거나 냉방비 부담이 크면 대응 선택도 줄어든다. 이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다.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은 인원수에 똑같이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과 필요를 살핀다.

위해: 폭염	+	노출: 활동·장소	+	취약성: 대응 조건

IPCC 위험 틀을 단순화한 개념도. 세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곱셈식이나 수치 예측식이 아니다.

연구를 읽을 때 지킬 경계

IPCC는 단일 실험이 아닌 과학적 종합평가다. 특정 지역의 개별 폭염 피해를 설명하려면 그 지역의 기상·주거·인구·노동 조건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05]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 공식 뉴스·관측 / 2026.03.23 (전체 출처: 18~20쪽)

[06] IPCC Working Group II / 과학 평가보고서 / 2022 (전체 출처: 18~20쪽)

ISSUE 03 생각을 내 말로 바꾸기

근거를 선택하고, 판단의 조건을 말하자

사례로 생각하기 / 수업용 가상 상황

지자체가 여름철 폭염 대책 예산을 모든 동에 같은 금액으로 나눌지, 고령자·야외 노동자·열악한 주거가 많은 곳에 더 배분할지 논의한다. 어떤 자료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까?

04 함께 살펴야 할 두 관점

위험에 따른 우선 지원

인구수 외에 취약 주거, 그늘, 쉼터 접근성, 노동 조건을 살피면 피해 예방에 더 필요한 곳을 찾을 수 있다.

정당성을 위한 조건

기준과 자료를 공개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 폭염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05 면접 말하기 / 자체 제작 연습 질문

1. [기본] 기후위기 대응에 형평성의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반론] 일부 지역을 더 지원하면 다른 지역에는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3. [확장] 학생이 제안할 수 있는 학교의 폭염 대책은 무엇일까요?

답변 구조 예시 / 자신의 경험을 더해 60~90초로 연습

저는 같은 폭염이라도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서 형평성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PCC는 기후위험을 위해뿐 아니라 노출과 취약성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냉방비 지원과 쉼터 안내, 야외 활동 시간 조정처럼 대상에 맞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원 기준을 공개하고 빠진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으로서는 교내 그늘과 급수 시설의 접근성을 조사해 개선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06 나의 답변 만들기

우리 학교나 동네에서 폭염을 피하기 어려운 장소를 한 곳 고르고, 필요한 관측 자료와 개선안을 적어 보자.

vulnerability 취약성 / climate justice 기후정의

ISSUE 04 언어 · 문화 · 교육

AI가 번역하는데, 외국어는 왜 배울까?

01 뉴스의 출발점 / 2026.02.21

유네스코는 2026년 세계 모어의 날에 다언어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했다. 언어는 정보 전달 수단인 동시에 정체성, 학습, 사회 참여와 연결된다. AI 번역의 발전이 소통의 문턱을 낮추는 지금, 어떤 언어와 사람의 목소리가 교육과 기술에서 충분히 다뤄지는지도 중요한 질문이 된다. [07]

02 개념을 이해하기

- **저자원 언어** 사용자 수만이 아니라 디지털 학습 자료와 도구가 부족한 언어를 뜻한다.
- **언어 간 상호의존** 한 언어로 발달시킨 능력이 다른 언어의 학습과 일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 두 언어의 능력이 저절로 같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03 학술 근거로 더 깊이 보기

번역 성능의 발전과 언어 학습의 가치를 나눠 본다

NLLB 연구진은 저자원 언어를 포함한 200개 언어의 번역 모델을 개발하고 성능을 평가했다. 이는 기술이 더 많은 언어를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 주지만, 모든 상황의 완벽한 이해를 검증한 연구는 아니다. 한편 Cummins의 상호의존 가설은 제2언어 발달이 기존 언어 능력과 부분적으로 관련된다고 설명한다. [08][09]

이를 학습에 연결하면, 외국어 공부는 한국어로 하던 독해·요약·근거 찾기를 다른 언어에서도 연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번역 결과를 비교하고 원문의 뜻과 어조를 살피면 기술도 더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 적용이다. 직접 대화하며 신뢰를 쌓는 목표 역시 번역 문장을 얻는 목표와 구분할 수 있다.

번역 도구 활용 → **원문·맥락 비교** → **질문·대화로 확인**

학습 활동의 제안: 기술의 도움을 받으며 언어와 상황을 판단하는 역할을 연습한다.

연구를 읽을 때 지킬 경계

번역 모델 연구가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입증한 것은 아니다. 언어 간 전이는 학습·교육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두 언어를 배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07] UNESCO / 공식 행사·의제 / 2026.02.21 기념일 (전체 출처: 18~20쪽)
[08] NLLB Team et al. / 동료심사 연구 / 2024 (전체 출처: 18~20쪽)
[09] Cummins, J. / 학술 이론·검토 / 1979 (전체 출처: 18~20쪽)

ISSUE 04 생각을 내 말로 바꾸기

근거를 선택하고, 판단의 조건을 말하자

사례로 생각하기 / 수업용 가상 상황

국제 교류 동아리에서 상대 학생의 글을 AI로 번역했다. 문장 뜻은 이해했지만 농담인지 진지한 제안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번역기를 더 돌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해 보자.

04 함께 살펴야 할 두 관점

기술이 넓히는 기회

익숙하지 않은 언어의 정보에 접근하고 초안을 비교할 수 있다. 소수 언어의 자료를 늘리는 데도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학습자가 맡을 판단

정확성·말투·상황을 확인하고 상대에게 뜻을 다시 물어야 한다. 자료 제공자의 동의와 언어 공동체의 참여도 고려할 수 있다.

05 면접 말하기 / 자체 제작 연습 질문

1. [기본] AI 번역 시대에도 외국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2. [반론] 소수 언어를 보존하는 일은 왜 사회 전체에 중요할까요?
3. [확장] 지원 언어를 공부하며 탐구하고 싶은 질문을 하나 말해 보세요.

답변 구조 예시 / 자신의 경험을 더해 60~90초로 연습

저는 AI 번역이 외국어 학습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기술은 정보 접근을 돕지만, 결과의 뜻과 상황을 판단하는 일까지 자동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언어 능력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외국어 공부는 이미 배운 독해와 표현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같은 주제의 한국어 기사와 지원 언어 기사를 비교해 표현과 관점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06 나의 답변 만들기

지원 언어로 읽어 보고 싶은 사회 문제 한 가지와, 번역 결과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한 가지를 적어 보자.

multilingualism 다언어 사용 / low-resource language 저자원 언어

ISSUE 05 디지털 시민성 · 정책 평가

SNS 연령 제한, 보호와 자율의 기준은?

01 뉴스의 출발점 / 2026.07.30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적용 대상 SNS에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막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요구했다. 2026년 공개된 초기 평가에서는 조사 대상 10~15세의 계정 보유 비율이 시행 전 약 52%에서 3개월 후 약 42%로 낮아졌다. 그러나 플랫폼 이용은 여전히 높았다. 계정 보유 감소와 장기적인 삶의 변화는 서로 다른 결과다. [10][11]

02 개념을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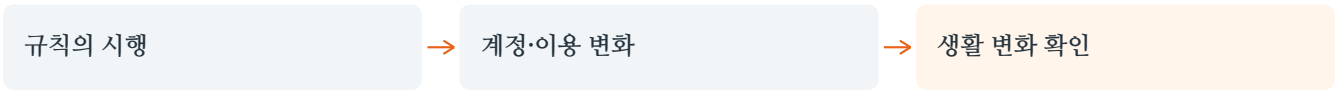
-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 두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과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키는 것은 다르다. 거꾸로의 영향이나 제3의 요인을 살펴야 한다.
- **정책의 성과 지표** — 정책이 무엇을 바꾸려는지 보여 주는 기준. 계정 수, 실제 이용, 위험 노출, 생활 변화는 나눠 측정해야 한다.

03 학술 근거로 더 깊이 보기

"몇 시간 쓰나"에 더해 "어떻게 경험하나"를 묻는다

Fassi 연구진은 2017년 영국의 11~19세 SNS 이용자 3,340명 자료를 분석했다.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이용 시간과 온라인 비교, 반응에 대한 경험 등이 달랐다. 하지만 같은 시점의 차이를 비교한 관찰연구여서, SNS가 해당 상태를 일으켰다는 결론은 낼 수 없다. 개인별 경험과 이용 방식도 살펴야 한다. [12]

정책을 평가할 때는 규칙이 생긴 사실, 실제 계정이 줄어든 사실, 위험 노출이나 생활이 달라진 사실을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움직이지는 않는다. 보호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더라도, 정보 접근과 관계 형성의 기회를 보완하고 연령 확인 과정의 개인정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 평가의 질문: 단계마다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 다음 단계의 효과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연구를 읽을 때 지킬 경계

호주의 초기 평가는 장기 효과나 변화의 원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Fassi 연구 역시 인과 증거가 아니며, 2017년 영국 자료를 현재 한국의 모든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10] eSafety Commissioner, Australia / 공식 정책 안내 / 2025.12.10 시행; 2026년 현행 안내 (전체 출처: 18~20쪽)
[11] eSafety Commissioner, Australia / 초기 정책평가 / 2026.07.30 공개 (전체 출처: 18~20쪽)
[12] Fassi, L. et al. / 동료심사 관찰연구 / 2025 (전체 출처: 18~20쪽)

ISSUE 05 생각을 내 말로 바꾸기

근거를 선택하고, 판단의 조건을 말하자

사례로 생각하기 / 수업용 가상 상황

학생회가 “SNS 계정을 제한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어떤 학생은 비교와 알림 때문에 집중이 어렵고, 다른 학생은 온라인에서 취미 공동체와 학습 정보를 얻는다. 모두에게 같은 방식이 적절한지 토론해 보자.

04 함께 살펴야 할 두 관점

공통 보호 장치

유해한 노출과 과도한 이용을 줄이려는 목적은 타당하다. 플랫폼의 추천·알림 설계와 신고·도움 요청 절차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자율성을 보장할 조건

연령 확인의 개인정보, 소통 기회와 대체 활동도 살펴야 한다. 청소년 의견을 듣고 실제 효과에 따라 제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05 면접 말하기 / 자체 제작 연습 질문

1. [기본] 청소년 SNS 연령 제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2. [반론] 계정 수가 줄면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3. [확장] 이용 시간 외에 어떤 지표를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구조 예시 / 자신의 경험을 더해 60~90초로 연습

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통 장치는 필요하지만, 효과를 확인하며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의 초기 평가에서는 계정 보유가 줄어도 플랫폼 이용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또 관찰연구의 관련성을 곧바로 원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실제 위험 노출과 생활의 변화, 소통 기회의 손실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의견을 듣고 알림 조절과 도움 요청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06 나의 답변 만들기

우리 학교에서 SNS 규칙을 시험한다면, 시행 전후에 비교할 지표 두 가지와 학생 의견을 모을 방법을 적어 보자.

correlation 상관관계 / causation 인과관계

ISSUE 06 인권 · 국제 협력

난민 지원, 도움을 넘어 공존으로

01 뉴스의 출발점 / 2026.09.29

유엔난민기구는 2026년 9월 자금 부족으로 난민·기타 강제이주민·무국적자 약 830만 명이 필수 지원에 접근하지 못할 위험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이는 난민만의 수치도, 이미 모두가 지원을 잃었다는 집계도 아니다. 긴급 보호를 유지하는 문제와,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조건을 마련하는 문제를 연결해 볼 수 있다. [13]

02 개념을 이해하기

- **범주 구분** — 난민, 국내실향민, 무국적자는 같은 말이 아니다. 국경을 넘었는지, 보호가 필요한 이유와 법적 지위 등을 구분해 자료를 읽는다.
- **집단 간 접촉** — 서로 다른 집단이 직접 만나 상호작용하는 일. 단순히 한 공간에 두는 것과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것은 다르다.

03 학술 근거로 더 깊이 보기

함께 협력한 경험이 태도 전체를 바꿀까?

Mousa는 이라크에서 강제이주를 겪은 기독교인 축구선수들을 같은 종교의 팀 또는 무슬림이 섞인 팀에 무작위로 배정했다. 혼합팀 경험은 함께 경기한 무슬림 동료 등에 대한 관용적 행동을 높였다. 그러나 축구 밖의 다른 사회적 상황과 넓은 집단 전체로 효과가 충분히 퍼지지는 않았다. [14]

협력할 공동 목표, 대등한 참여, 지속적인 만남을 마련하는 일은 공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단서가 된다. 다만 개인을 만난 경험이 집단 전체에 대한 편견을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는다. 언어 교육·학교생활 지원 같은 제도와 실제 협력 활동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이는 해당 연구를 국내 교육에 직접 검증한 결과가 아니라 적용을 위한 제안이다.

대등한 참여 + 공동 목표·협력 + 지속적 만남

접촉 연구를 바탕으로 한 설계 조건. 효과가 다른 상황까지 퍼지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연구를 읽을 때 지킬 경계

한 분쟁 이후 지역의 성인 남성 축구선수 연구다. 한국 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효과나 국가의 난민 수용 규모를 곧바로 결정해 주는 근거는 아니다.

[13] UNHCR / 공식 보도자료 / 2026.09.29 (전체 출처: 18~20쪽)

[14] Mousa, S. / 동료심사 연구 / 2020 (전체 출처: 18~20쪽)

ISSUE 06 생각을 내 말로 바꾸기

근거를 선택하고, 판단의 조건을 말하자

사례로 생각하기 / 수업용 가상 상황

학교가 새로 전학 온 이주 배경 학생을 돕기 위해 하루짜리 문화 소개 행사와 한 학기 공동 프로젝트를 검토한다. “우리 문화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이 당사자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도 살펴보자.

04 함께 살펴야 할 두 관점

보호와 참여의 기회

안전과 학습 기회를 보장하면서, 서로 동등하게 기여하는 과제를 설계할 수 있다. 당사자가 원하는 도움을 먼저 묻는 것이 중요하다.

실행에서 살필 조건

예산·언어 지원·갈등 조정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만남만 제공한 뒤 모든 편견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05 면접 말하기 / 자체 제작 연습 질문

1. [기본] 난민 지원과 사회 통합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반론] 공존 프로그램에서 단순한 만남보다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3. [확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겠습니까?

답변 구조 예시 / 자신의 경험을 더해 60~90초로 연습

저는 긴급한 보호와 장기적인 참여 기회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의 축구 실험은 함께 협력한 상대에 대한 행동이 좋아질 수 있음을 보여 주지만, 변화가 모든 상황으로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뿐 아니라 언어 지원과 지속적인 공동 활동을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를 도움만 받는 사람으로 정하지 않고, 원하는 역할과 참여 방식을 먼저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06 나의 답변 만들기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대등하게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하나 설계하고, 참여 의사를 묻는 방법도 적어 보자.

refugee 난민 / social cohesion 사회적 결속

ISSUE 07 국제 경제 · 분배

세계 무역이 늘면, 모두에게 이익일까?

01 뉴스의 출발점 / 2026.10.08

세계무역기구는 2026년 10월 전망에서 올해 상품 무역량 증가율을 3월의 1.9%에서 3.9%로 높였다. 반면 상업서비스 무역량 전망은 4.8%에서 3.3%로 낮췄다. AI 관련 수요와 공급망 적응이 상품 교역을 지탱했지만, 중동 분쟁은 운송·여행 등에 부담을 주었다. 전체 성장 속에서도 분야와 지역의 경험은 다를 수 있다. [15]

02 개념을 이해하기

- **비교우위** 다른 일을 포기하는 비용, 즉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에 강점이 있다는 뜻. 모든 일을 더 잘해야만 교역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조정 비용과 분배** 산업 변화로 일자리·기술·지역 경제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 전체 이익의 증가와 사람별 이익의 배분은 나눠 보아야 한다.

03 학술 근거로 더 깊이 보기

무역의 이익과 지역의 손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Autor·Dorn·Hanson의 검토연구는 중국발 수입경쟁에 크게 노출된 미국 지역에서 노동시장 조정이 느리고, 고용·임금 등에 오래 지속되는 부담이 있었음을 정리했다. 소비자가 누리는 이익이 존재해도,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의 비용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16]

비교우위는 교역이 전체 생산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누가 전환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따라서 “무역에 찬성하는가”만 묻기보다 영향을 받는 사람, 전환을 도울 제도, 공급망의 안정성과 비용을 함께 살필 수 있다.

교역의 전체 이익 → **개인·지역별 비용** → **전환 지원·점검**

평가의 관점: 전체의 성장과 이익의 분배, 공급망의 회복 능력을 함께 본다.

연구를 읽을 때 지킬 경계

과거 미국의 특정 수입경쟁 경험을 다룬 연구다. 2026년 모든 교역이나 특정 한국 산업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WTO 수치도 확정 실적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전망치다.

[15]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공식 전망·뉴스 / 2026.10.08 (전체 출처: 18~20쪽)

[16] Autor, D. H., Dorn, D. & Hanson, G. H. / 동료심사 검토연구 / 2016 (전체 출처: 18~20쪽)

ISSUE 07 생각을 내 말로 바꾸기

근거를 선택하고, 판단의 조건을 말하자

사례로 생각하기 / 수업용 가상 상황

더 저렴한 수입품이 들어오면 소비자는 선택이 늘지만 지역의 일부 공장은 주문이 줄 수 있다. 반대로 공급망을 지나치게 한 곳에 의존하면 교역이 중단될 때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정책은 어떤 목표를 함께 세워야 할까?

04 함께 살펴야 할 두 관점

개방과 교류의 이익

다양한 상품·기술에 접근하고 시장을 넓힐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생산과 교환은 전체 기회를 늘릴 수 있다.

전환과 회복의 조건

재교육·이동·지역 전환 지원의 실효성을 살펴야 한다. 공급처 다변화에는 안정성뿐 아니라 비용이 따른다는 점도 고려한다.

05 면접 말하기 / 자체 제작 연습 질문

1. [기본] 세계 무역이 성장하면 국민 모두가 이익을 본다고 말할 수 있나요?
2. [반론] 피해를 보는 산업이 있다면 수입을 모두 막아야 할까요?
3. [확장] 국제 협력과 국내 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함께 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구조 예시 / 자신의 경험을 더해 60~90초로 연습

저는 무역이 전체 기회를 늘려도 이익이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미국의 수입경쟁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의 조정 비용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류의 이익을 살리면서도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재교육과 지역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공급망도 비용과 안정성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한 나라의 경험으로 현재 모든 산업을 단정하지 않고, 대상 산업의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06 나의 답변 만들기

내가 쓰는 물건 하나의 생산·운송 경로를 조사한다면, 누구의 이익과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할지 적어 보자.

comparative advantage 비교우위 / adjustment costs 조정 비용

FINAL PRACTICE

하나의 문제를, 두 개의 근거로 바라보기

서로 다른 두 주제를 연결해 아래 질문 중 하나에 답해 보자. 결론을 먼저 말하되, 연구 한계와 반대편의 합리적인 우려를 함께 다루는 것이 목표다. 아래 질문 역시 실제 기출이 아닌 자체 제작 연습 문항이다.

A 기술과 인간의 판단 | 01 + 02 + 04

AI가 학습·번역·정보 제작을 돕는 시대에 학생이 직접 길러야 할 능력은 무엇일까요?

B 같은 규칙과 다른 필요 | 03 + 05 + 06

모두에게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C 국제 협력과 국내의 책임 | 03 + 06 + 07

국제 문제에 협력하면서 국내의 비용과 우려도 함께 다루려면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요?

90초 답변 설계

내 판단과 판단 기준 / 15초

뉴스 사실과 연구 근거 / 30초

반론·연구 한계·보완책 / 25초

나의 경험 또는 앞으로의 탐구 / 20초

녹음한 뒤 체크하기 / 각 항목을 0·1·2점으로 평가

- ☐ 사실 정확성: 날짜·대상·수치의 의미를 맞게 설명했는가?
- ☐ 근거 이해: 연구 방법과 핵심 결과를 내 말로 설명했는가?
- ☐ 판단의 타당성: 근거에서 지나치게 큰 결론으로 뛰지 않았는가?
- ☐ 관점의 균형: 반론이나 한계를 인정하고 보완 조건을 말했는가?
- ☐ 자기 연결: 실제 경험 또는 구체적인 탐구 계획을 넣었는가?

0점: 빠짐·부정확 / 1점: 언급했지만 모호함 / 2점: 구체적이고 정확함

교사 활용 제안 | 뉴스 요약 3분 → 근거 설명 4분 → 반론 토론 4분 → 개인 답변 4분. 예시의 입장과 일치하는지보다, 근거의 정확성과 설명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피드백한다.

REFERENCES 1/3

기사와 연구를 직접 확인하기

자료 확인일: 2026.10.20 | 각 항목의 "원문 열기"를 누르면 연결된다.

[01] 시사 해설 / 2026.04.02; 수정 04.07

Learning to think in the AI era

Wayne Holmes / UNESCO Courier.

AI가 과제를 대신 수행하는 것과 사람이 배우는 것의 차이를 다룬 전문가 해설.

원문 열기 courier.unesco.org/en/articles/learning-think-ai-era

[02] 동료심사 연구 / 2025

Generative AI without guardrails can harm learning: Evidence from high school mathematics

Bastani, H. et al. PNAS, 122(26), e2422633122.

고교 수학 현장실험. 2025.08.20 정정 공지 있음. 본 교재는 핵심 질적 결론을 요약하며 세부 효과 수치는 싣지 않았다.

원문 열기 doi.org/10.1073/pnas.2422633122

[03] 공식 발표 / 2026.07.31; 적용 08.02

Commission starts enforcing AI Act rules and new transparency requirements on 2 August

European Commission.

AI 상호작용·생성 콘텐츠 투명성에 관한 발표. 세부 적용 범위와 예외·유예는 별도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원문 열기 digital-strategy.ec.europa.eu / 제목으로 검색

[04] 동료심사 연구 / 2022

Psychological inoculation improves resilience against misinformation on social media

Roozenbeek, J. et al. Science Advances, 8(34), eabo6254.

조작 기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검증한 무작위 연구 및 유튜브 현장 연구.

원문 열기 doi.org/10.1126/sciadv.abo6254

[05] 공식 뉴스·관측 / 2026.03.23

Earth's climate swings increasingly out of balanc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5 발표. 2025년 전 지구 평균기온 수치의 기준 기간은 1850~1900년.

원문 열기 wmo.int/media/news/earths-climate-swings-increasingly-out-of-balance

[06] 과학 평가보고서 / 2022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Summary for Policymakers

IPCC Working Group II.

기후 위해·노출·취약성의 관계와 적응을 다룬 종합평가. 특히 B.2 및 관련 위험·형평성 논의 참고.

원문 열기 www.ipcc.ch/report/ar6/wg2/chapter/summary-for-policymakers/

REFERENCES 2/3

기사와 연구를 직접 확인하기

자료 확인일: 2026.10.20 | 각 항목의 "원문 열기"를 누르면 연결된다.

[07] 공식 행사·의제 / 2026.02.21 기념일

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 2026 celebrations

UNESCO.

2026년 의제는 다언어교육에서 청소년의 목소리와 참여. 일반 교육 현황과 기념일 의제를 구분하여 읽는다.

원문 열기 www.unesco.org/en/days/mother-language

[08] 동료심사 연구 / 2024

Scaling neural machine translation to 200 languages

NLLB Team et al. Nature, 630, 841–846.

저자원 언어를 포함한 200개 언어 기계번역 모델과 평가. 번역 성능과 문화적 이해는 같은 측정 대상이 아니다.

원문 열기 doi.org/10.1038/s41586-024-07335-x

[09] 학술 이론·검토 / 1979

Linguistic Interdependence and the Educational Development of Bilingual Children

Cummins, J.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9(2), 222–251.

언어 발달의 상호의존 가설. ERIC EJ205671 및 ED257312의 서지·초록도 대조하였다.

원문 열기 doi.org/10.3102/00346543049002222

[10] 공식 정책 안내 / 2025.12.10 시행; 2026년 현행 안내

Social media age restrictions

eSafety Commissioner, Australia.

호주의 적용 대상 SNS 계정에 관한 16세 기준. 모든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다.

원문 열기 www.esafety.gov.au / 제목으로 검색

[11] 초기 정책평가 / 2026.07.30 공개

Early days, early insights: Understanding experiences of social media age restrictions at the three-month follow-up

eSafety Commissioner, Australia.

시행 전 2025.11~12월과 시행 후 2026.03~04월 조사 비교. 계정 보유와 실제 이용을 구분하고 장기 효과를 유보한다.

원문 열기 www.esafety.gov.au / 제목으로 검색

[12] 동료심사 관찰연구 / 2025

Social media use in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mental health conditions

Fassi, L. et al. Nature Human Behaviour, 9, 1283–1299.

2017년 영국 11~19세 SNS 이용자 3,340명 자료의 횡단면 분석.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는다.

원문 열기 doi.org/10.1038/s41562-025-02134-4

REFERENCES 3/3

기사와 연구를 직접 확인하기

자료 확인일: 2026.10.20 | 각 항목의 "원문 열기"를 누르면 연결된다.

[13] 공식 보도자료 / 2026.09.29

UNHCR sounds the alarm as 8.3 million risk losing their lifeline

UNHCR.

난민·기타 강제이주민·무국적자 약 830만 명의 지원 접근 위험에 관한 경고. 이미 모두 지원을 잃었다는 뜻은 아니다.

원문 열기 www.unhcr.org / 제목으로 검색

[14] 동료심사 연구 / 2020

Building social cohesion between Christians and Muslims through soccer in post-ISIS Iraq

Mousa, S. Science, 369(6505), 866-870.

이라크 강제이주 기독교인 축구선수의 혼합팀 배정 실험. 만난 상대에 대한 행동 변화와 다른 상황으로의 일반화를 구분한다.

원문 열기 doi.org/10.1126/science.abb3153

[15] 공식 전망·뉴스 / 2026.10.08

AI boom and trade resilience to Middle East crisis lift outlook, but gains to be uneven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26년 상품 무역량 증가율 전망 3.9%, 상업서비스 무역량 증가율 전망 3.3%. 확정 실적이 아닌 전망치.

원문 열기 www.wto.org/english/news_e/news26_e/stat_08oct26_510_e.htm

[16] 동료심사 검토연구 / 2016

The China Shock: Learning from Labor-Market Adjustment to Large Changes in Trade

Autor, D. H., Dorn, D. & Hanson, G. H. Annual Review of Economics, 8, 205-240.

중국발 수입경쟁에 노출된 미국 지역 노동시장의 조정 비용을 검토. 모든 무역·국가·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원문 열기 doi.org/10.1146/annurev-economics-080315-015041

자료를 읽는 원칙

1) 뉴스 사실은 날짜·범주·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2) 실험과 관찰의 근거 강도를 구분한다. 3) 제도·교육에 대한 제안은 연구 결과 그 자체와 구별한다. 4) 면접 직전에는 원문에서 후속 발표와 정정 사항을 다시 확인한다.

편집·구성: 바른에듀케이션

본문 명조체 · 양쪽 정렬 · 개념 도식 자체 구성

뉴스·연구의 핵심을 재서술했으며, 기사 사진이나 논문 도표는 전재하지 않았다.